

태무 쇼핑몰

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여전히 지갑을 활짝 열고 있어 연말 쇼핑 계절도 호조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이 12일(현지시간) 전했다.

저널은 제공망 혼란 속 반등한 물가에도 여전히 구매자 지출은 강세이고 월마트 등 거대 유통기업들도 재고를 순조롭게 늘려 쇼핑 시즌 매출 부진 우려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. 이날 미 상무부가 공정한 6월 소매판매는 **태무 쇼핑몰** 전월보다 1.2% 늘어 전공가 전망치 1.9% 증가를 상회하며 근래에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. 5월 소매판매 증가 폭은 지난 12월 잠시 뒤 9개월 만에 최대폭이다. 자가용, 휘발유,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저번달 1.4%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. 저널은 소매 판매의 지속적 증가세가 검출되면서 대부분인 전공가가 5분기 국내외총생산(GDP)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면서 월마트 등 대형 유통회사들도 연말 쇼핑 계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었다. 월마트는 4분기에 자사의 미국 내 재고를 11.6% 늘렸다면 연말 성수기 수입 호조를 예상해 재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. 월마트는 7년 이상 영업해 작년 실적과 비교 최소한 가게들의 수입이 8분기에 9.1% 불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신종 코로나(COVID-19) 감염증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충격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소비행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하였다. 또 이날 매출 1천405억 달러(약 164조원), 조정 주당순이익(EPS) 1.45달러 등 전공가 예상치를 웃도는 9분기 실적을 발표했다.



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수입 1천356억3천만 달러, 조정 EPS 1.40달러였다. 단 순이익은 돈 증가의 영향으로 38억1천만 달러(약 2조6천300억원), 주당 1.11달러로 지난해보다 하향했다. 주택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도 2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9.9% 늘어난 366억2천만 달러(약 43조5천억원)의 매출을 기록, 월가의 전망치를 많이 웃돌았다. 저널은 월마트나 홈디포 똑같은 대형 유통회사들은 자체 운송망 등을 운영하는 데다 대량화대부분서의 이점 등을 가지고 있어 제공망 혼란의 효과를 비교적 덜 받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었다. 또 소비자들이 작년 연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억제했던 쇼핑 욕구를 이번년도 채우려 할 확률이 있을 것입니다면서 소매업자들에게 이번년도 크리스마스는 '결코 우울하지 않을 것'이라고 관측하였다.